

A study on the aged welfare model using the advanced technology

- Focusing on emotional welfare -

Sang-Ok Shin *, Seong-Ok Kweon **, Chang-Suok Choi ***

Abstract

This study is looking to do a new model which overcomes emotional isolation phenomenons of aged people through using an advanced technology in our community approaching an aging society. Senior welfare has been oriented to economically, medically supported welfare model so far. An ageing society going on, even if the scale of welfare cost is bigger and bigger, the level of satisfaction has been decreasing. This is the fact that the expansion of economical support for the aged in emotional alienation is not only a solution for them suffering from emotional isolation phenomenons ,which requires a new model for senior welfare. Above all, because the senior welfare oriented to economically, medically supported welfare model can not be continued any more, a new model is required to be sustainable in national finance. This study has a purpose that recovers emotional life of the aged,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 and offers emotional welfare model to be sustainable economically.

▶ Keyword : aged welfare, emotional welfare, elderly ethics, advanced technology

I. Introduction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비용역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클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안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노인폭력, 노인자살, 노인 우울증 등 노인의 심리적 소외문제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는 노인소외 문제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소외 문제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개인생애주기 중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노년의 의미를 간과할 뿐 아니라,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확대를 가져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

행 노인복지 정책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고령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노인의 정서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노년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경우와 달리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생애 주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떤 결핍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노인이 사회에 융화되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 소외현상의 원인은 노년이 되면서 가족을 비롯한 사회구성원과의 인격적 관계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인격적 고립은 육체적, 물질적 안락함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정서적 위기를 불러온다.[1] 본 연구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인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서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모델은 노인이 다른 사회 구성

• First Author: Sang-Ok Shin, Corresponding Authors: Chang-Suok Choi
*Sang-Ok Shin (godflower12@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Seong-Ok Kweon (kso1255@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Chang-Suok Choi (ccs123@nhis.or.kr),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5. 09. 16, Received: 2015. 09. 20, Accepted : 2015. 10. 08.

원 및 가족과의 인격적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정서적 교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정서적 삶의 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복지모델이다.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 인격적 관계가 가족공동체로 축소되지만, 현대 사회의 가족공동체는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지금의 의료기관이나 요양소가 정서적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될 것이며 그 효과도 역시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서복지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모델은 과거 가족 및 사회 공동체가 제공하던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서복지 모델에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를 보완할 있도록 첨단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또한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노인복지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현재의 노인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II. The present condition of welfare policy for the aged and the need of changing the policy direction

1.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focusing economic support and its limits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 관련사업 역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계층 고착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기반 투자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으며, 앞으로 5년 후인 2019년에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비, 정확히는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은 다른 복지서비스예산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2.51%에서 2014년 28.3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 이렇게 우리사회는 1990년대 노인 관련 복지예산을 증가시켜 오고 있지만 세계 1위의 노인 자살률이 보여주듯이, 노인의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복지 정책이 단지 경제적 혹은 의료적 지원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경제적 지원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바뀔 때 할 시기로 본다. 인간의 삶은 육체적 물질적 삶은 물론 영적 정신적인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에서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점점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가치추구 및 심신의 안녕으로 단계를 높여간다고 했다. 따라서 높은 노인 자살률은 경제적 노인복지 정책을 통해서 노인들의 물질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공허함은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노인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환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제적 지원중심이 아니라 노인의 정신적 삶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New welfare policy for overcoming the emotional alienation of the aged

노인이 겪는 소외감의 중심에는 노인이 현대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상이다.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중요한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확인되고, 그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가족이다. 노인이 느끼는 소외감을 일차적으로 가족과의 인격적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정서적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자녀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선언적 구호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윤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가족구성원의 감소에 따라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치를 희생이 과거에 비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로봇이나 ICT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인격적 관계를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2.1 윤리적 정당화의 모색

노인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노부모 자녀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노부모 보살피고 봉양해야 할 자녀의 책임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을 어긴 자녀에 대해서는 정신적 처벌(명예훼손과 사회적 비난)을 함께 관습에 따른 물리적 처벌이 주어졌다.[4] 하지만 근대 사회로 넘어 오면서 법 의무 이외 윤리적 의무의 수행 여부는 물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고,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감도 희미해지고 있지. 심지어 노부모의 부양을 전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내맡기고 부모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킬 거부하는 자녀들도 생기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룬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새롭게 정당화 하기 위한 윤리적 근거를 모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전통적인 효 사상의 재해석, 부모자녀관계의 특수성과 특별한 감정에 주목한 덕 윤리, 보편적인 윤리원칙에 근거하여 자녀의 의무를 도출하는 칸트주의 윤리 등이 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정당화하려는 이들 윤리 이론들은 각각의 한계를 갖지만, 부모자녀관계를 혈연 중심의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공동체로 확대 할 수 있다면 노인의 정서적 소외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유교에서의 효 사상은 가족주의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이런 점에 주목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효 사상이 부모자녀간의 일방적 희생관계를 강요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윤리 실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의무주의 윤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현대의 덕 윤리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의 근거를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인데, 사랑과 우정으로 연결된 이 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대해 대응할 수 없다.[5] 따라서 덕 윤리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을 지역 사회나 다양한 공동체로 확대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모색해야 한다.

2.2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노인의 정서적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지, 지역공동체 구성원과의 인격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고령화 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면 인격적 관계의 강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인격적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격적 관계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 노인과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정서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로봇기술을 이용하여 노인의 정서적 소외 현상을 완화 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나, 치매노인의 경우처럼 자녀나 의료 봉사자가 정서적 보살핌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로봇기술을 적용한 노인 돌봄 장치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복지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첨단장비 개발의 시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기여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현재 노인복지의 문제점 중 하나는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에 있다. 노인 복지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첨단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창조적 복지경제 라고 부를 수 있다.

3. Related studies

3.1 국내외 연구현황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복지 정책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복지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나 재원마련의 방법 등에 치중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연구도 노년층의 사회적 심리적 소외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사회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주로 노인의 심리적 소외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주로 심리치료나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노인소외의 원인을 가족공동체의 붕괴로 진단하고 가족 공동체 재구성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를 포함하여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related studies

3.2 선행연구의 한계

기존 노인복지 연구의 중심은 복지정책의 전체 영역 안에서 노인복지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를 전체 사회복지의 하위범주로 간주하고, 경제적 소외에 초점을 맞춘 결과인데,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접근법은 노인문제가 단지 빈곤문제나 장애인 문제와 다른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노인문제는 어떤 특별한 장애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경제적 계층의 문제도 아니다. 노령화는 삶의 주기에 누구나 겪는 과정이므로, 잠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령화는 삶의 주기에 누구나 겪는 과정이므로, 잠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는 노인문제의 이런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복지자원의 분배에서 노인복지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나, 노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복지가 가져올 재정적 과급효과에 대한 연구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노인복지 관련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특히 심리적 소외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노인우울증이나 자살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소외현상을 심리적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8] 노인이 겪는 정서적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이상상태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년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과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3.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3.1. 본 연구는 노인복지를 다양한 복지 분야 중 하나로 보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의 주기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과정으로 노인복지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노인의 삶의 주기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므로, 특정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나 경제적 소외계층의 복지와 다르다. 본 연구는 이런 차이점에 주목해서 노인복지를 노인윤리와 첨단기술의 활용과 연계시키고자 한다.

3.3.2. 본 연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통해 노인 문제의 보편적 성격을 확인하고 노인문제를 사회윤리 안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 머물던 노인문제연구를 윤리적 차원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기존의 노인복지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3.3.3. 본 연구는 노인이 겪는 심리적 소외의 해결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심리적 위기를 개별적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정서적 교감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로서, 본 연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3.4. 본 연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윤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기존의 연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노인복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을 연구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과제는 노인복지를 정서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이루려고 시도하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를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III. Using the advanced technology for the emotional welfare of the aged

1. Use of robot engineering technology

노인의 정서적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기술인 로봇공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로봇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감정을 해석하고 그에 대응하여 반응하는 정서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AIST 에서 개발한 하프 물범의 모습을 한 로봇 파로(Paro)는 치료용 정서로봇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긴 노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는 사람의 정서를 감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지닌 노인들이 정서적 소통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만약 노인의 정서 상태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해서 정서

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로봇이 사용된다면, 노인의 정서적 소외 문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Use of the advanced ICT

ICT 기술을 이용해서 노인의 정서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 분야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노인의 정보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PC사용법이나 인터넷 활용법 수준의 지식전달을 넘어 ICT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 사이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6]

3. The aged welfare and W-Tech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창조행복 나누미 모델, 즉, W-Tech 모델은 노인의 정서복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복지체계 및 사회경제구조에 편입되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W-Tech란 복지(Welfare) 영역에서 기업과 사회의 상생(Win-Win)을 이끌어 내는 따뜻한(Warm) 기술을 의미한다.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기업은 노인복지기술을 제공하고, 이런 기술을 다시 사회의 시장구조에 편입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정서를 돌보는 기술의 개발은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V. The emotional welfare model for sustainable

1. Need of sustainable the aged welfare model

노인복지 문제는 장애인 복지나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달리, 동시대인들 사이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후속세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작 후속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이 고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 증가할 경우, 2050년 통합재정 기준으로 GDP대비 29.7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 중에서 노인복지 비용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지만, 투입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특히 노인의 정서적 삶의 질은 과거보다 떨어져 있으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수, 노인에 대한 폭력, 노인우울증, 노인자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경제적 지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감소하므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노인의 정신적 삶, 특히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려면, 미래세대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은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2. Development of new family community model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하려는 경향이다. 법 제도를 통해 사회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만, 이런 정책은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정서적 지원까지 고려한다면, 노인복지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과 노인의 정서적 지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복지 수혜자에게 정서적 소외감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도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윤리적 의무 관계를 새롭게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Creative welfare economic model using the advanced technology

노인의 정서적 돌봄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윤리적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지만, 가족에게 노인의 정서적 돌봄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인의 정서적 돌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촉이 많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는 돌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어렵다.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원 중심의 복지에서 수요 지향적 서비스 중심 복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여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공급하고, 이를 일반 시장에도 출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에 재투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ICT 기반의 「행복창조 나누美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기업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기업은 이 기술을 시장에 내놓아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7]

4. Research model and methods

4.1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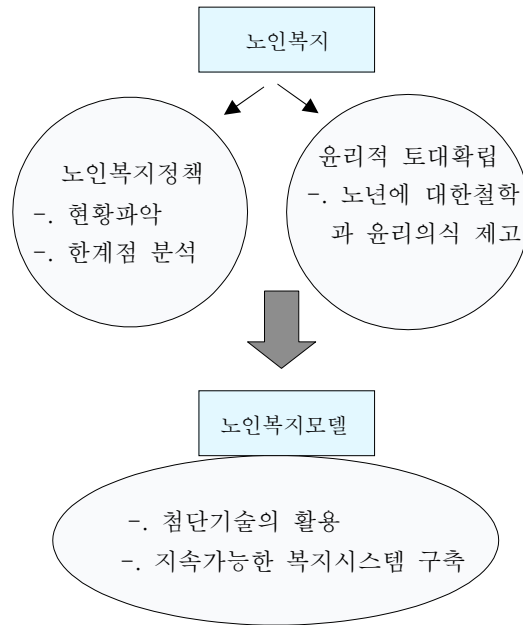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1.1.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파악 및 한계점 분석

기존 노인복지정책, 즉, 재정적 복지와 의료적 지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실질적인 시행 과정과 성과에 있어서의 한계점과 부족한 점을 분석하여 ‘사회적 윤리의식’과 ‘복지원칙과 기술’ 면에서의 보완의 핵심지점을 추출한다.

4.1.2. 노인의 정서복지를 위한 윤리적 토대의 확립

노인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윤리의식의 제고가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철학적 토대가 확고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에, 동서양 윤리사상에서 토론하는 사회 및 가족 윤리의식을 재구성함으로써, 노인의 정서소외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1.3. 노인의 정서복지를 위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

지속가능한 정서복지 모델 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단계로서, 실효성의 극대화 와 토대 마련을 위한 철학적 작업에서 더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대한 개념 및 핵심요소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거쳐,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찾고 익힌다. 이는 윤리학과 기술복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한다.

4.1.4. 지속가능한 노인복지모델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모델은, 윤리, 기술 통합적이며 실현가능성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정책모델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 적용을 위한 노인계층과의 광범한 면담과 의견수렴을 한다. 노인들이 정서 소외 해결을 위해 기술적 복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이론적, 사변

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 했을 때 실제와 어떤 점이 부합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정책수혜자로부터 조언을 들음으로써, 모델의 실효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연구방법

4.2.1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에 대한 학제 융합적 연구

본 연구는 서양의 윤리학, 동양의 유교철학, 과학기술 윤리학, 복지학, 첨단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탐구한다. 노인의 정서문제를 서구의 연구 성과에만 기초하여 분석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해결의 내용 요소를 포괄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기초한 연구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유교전통에만 입각한다면, 이 여기 미래의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서양의 윤리학을 협동연구, 분석하여 현실정책에 유의미한 방향을 모색한다.

4.2.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사회복지학과 심리학에서의 정서소외의 개념 정의 및 하위 요소들에 대한 이론적 보완과, 사회복지사 및 복지기관 자문을 통한 이론적 한계 극복을 도모한다. 전문가 자문 및 면접은 국내·외를 포괄하며, 인터넷과 초빙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다.

4.2.3 정책수혜자(노인계층) 면담 및 의견 수렴

연구모델을 기초로 실제 정책수혜자인 노인계층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정책으로의 구현가능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모델이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되어 실천되기 위해서는, 현 사회의 문화, 즉 구성원의 행동 및 생활양식, 가치체계등과 적합하거나 소통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정착화 되었을 때 수혜자가 될 노인들과의 면담은, 사전작업과 피드백이 통합된 단계로 모델 적합성을 확인하는 보조적 절차이다. 노인들이 모델 적용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변화를 경험할 지를 최대한 예측함으로써,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노인복지의 다양한 접근은 물론 노인윤리의 바탕 위에, 노인복지를 첨단기술과 연계시켜 기술복지를 적용하여 의료적,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노인이 피부로 느끼는 정서복지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여 노인복지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문제를 철학적 논의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올바른 접근과 철학적 성찰을 통해 노년의 삶의 적극적 의미를 확립하고, 둘째, 노인복지는 실제적 문제이므로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책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며 여기에 첨단과학기술 등 학제적 상호협력을 통한 접근을 시도했다. 셋째, 노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년의 정서적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ICT와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인복지와 산업계를 연결시킴으로써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Ruk-Sang Kweon, "The Theory of Elderly Welfare", You-Pung Publishing Company, pp.17-18, 2002.
- [2] Seung-Chuel Lee, "A Study on the Orientation of Social Welfare Finance in Local Governments: Centering on Content Analysis of Social Welfare Expense Budget in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6, No. 3., pp. 310-312, December 2012.
- [3] Jae-e Ko,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defining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cial service provis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26, pp. 21-25, 2013.
- [4] Ui-Seong Son, "The Effect of the Support given by adult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Adult Children Perceived by the Elderly Parents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3 No. 2, pp. 71, July 2006.
- [5] Mun-Ki Choi, "Ethical Rationale of 'Hyo' Duty",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Vol 13, pp. 14, June 2011.
- [6] Eun-A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Cultural and Social Capital regarding the Quality of Life of Alienated Elderly -With a Focus on Cultural Programs of Social Welfare-",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Vol. 14, pp. 90-91, March 2015.
- [7] Hyun-su Han, "Silver ICT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Vol. 21, No. 4, pp. 503, December 2014.

[8]

(Website)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213693>.

Authors



Sang Ok Shin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Persident of Korea Horticultural Therapist Association,



Seong-Ok Kweon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Chang-Suok Choi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Natoinal Health Insurance Service, Gwangju Branch